

근육장애인 99% “일상생활시 돌봄 제공자 필요하다”

광주시 근육장애인복지증진 토론회

광주지역 근육장애인 대다수가 활동지원사나 부모에게 돌봄을 의지할 수 밖에 없어 근육장애인을 위한 돌봄지원서비스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 근육장애인협회’는 30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 근육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 복지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의회와 광주복지연구원, 광주시 근육장애인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광주지역 근육장애인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에게 맞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육장애는 온몸의 근육이 약화돼 전신 마비뿐만 아니라 호흡 근육과 심폐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심해지면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장애다. 진행 정도에 따라 보행과 휠체어, 침상단계를 나뉜다.

더불어민주당 이영노(서구 3) 광주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인경 광주복지연구

서비스 시간 부족·활동지원사 공급 부족 등 애로사항 꼽아

가장 필요한 서비스 1위 ‘경제적 지원’...재활·치료서비스 順

원 연구원이 ‘광주시 근육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이후 장익선 광주시근육장애인협회 대표, 정희경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홍목(사)실로암 사람들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광주지역 근육장애인 실태조사는 지난해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31일간 광주지역 108명의 근육장애인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가정이나, 외부활동 등 일상생활시 돌봄 제공자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99%에 달했다. 이 중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5.9%를 차지했다.

돌봄 제공의 주요 대상은 활동지원사가 44.8%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39.0%, 배우자가 7.6% 순이었다.

이들은 돌봄서비스 관련 애로 사항으로 서비스 시간 부족(33%)과 활동지원사 공급 부족(19%), 지원사와 관계적 스트레스(15%)를 꼽았다.

근육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로는 경제적 지원(25.6%)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재활 및 치료서비스(12.3%), 활동지원서비스(11.7%), 의료비 지원(9.9%), 질환 특성에 맞는 각종 물품 지원(7.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정 연구원은 근육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계적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부 계획으로 근육장애인을 위한 공식적 돌봄 지원서비스 확대를 언급했다. 호흡 신경 근육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돌봄 지원 강도에 따른 가사 수당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활동지원사의 업무 강도에 따라 단가를 차등해 지급하는 차등수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 연구원 “근육장애인은 진행성 질환으로 단계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구가 다양해 개별 특성을 고려한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며 “보조기구로는 자세 변환 침대, 고기능 수동휠체어, 휠체어 배터리, 인공호흡기, 대소변 흡수용품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최중증 근육장애인을 전담하는 활동지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5살 때 근이영양증을 진단받은 장익선 대표는 “근육장애인은 활동지원 강도가 높지만 동일 임금을 받고 인공호흡기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활동지원사와 매칭이 어렵다”

고 토론했다. 활동지원사 적극매칭을 위해 장애 정도에 따른 차등 수가 현실화, 장애 정도에 따른 급여 차등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중증 근육장애인을 케어하는 경우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근육장애인은 10분 간격으로 자세를 바꿔주지 않으면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수시로 체위변경이 필요한데 이 경우 세심한 케어가 중요하다”며 “체위변경, 트랜스퍼 등 의료기기 사용 등 실천 활용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최중증 전담 활동지원사 양성 제도를 광주시에서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회와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기기·이동 지원’ 등의 예시로는 신경·근육 장애인을 위해 보조기구 렌탈 사업, 장애인 보조기구센터와 연계한 맞춤 보조기구 지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자체가 별도 보조기구 렌탈 사업이나 센터와 연계해 맞춤 지원하는 방식이 추천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에너지전환둘레길 함께 걸어요

광주에너지파크 해담마루, 내달 28일까지 예약 접수

광주에너지파크 해담마루가 6월 30일까지 에너지전환둘레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에너지파크, 상무시민공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주차장 등에 있는 에너지전환시설을 눈으로 보며 에너지전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생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키트 만들기 체험도 진행해, 아이들이 태양광 에너지의 원리와 활용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시행 중인 ‘순환자원 회수 로봏’, 물을 투과시키는 ‘투수블록’과 같은 친환경 시설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에너지전환둘레길 프로그램은 광주 시민과 학생 뿐 아니라 타 지역 시민까지 포함해, 5월 한달에만 4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전환둘레길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토요일, 하루 세차례 진행된다. 최소 3명 이상 예약 신청이 가능하며 예약기간은 6월 28일까지다. 광주 에너지파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환경운동연합, 수달 로드킬 방지 모금활동

광주환경운동연합이 멸종위기종인 수달의 로드킬 방지를 위해 모금활동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카카오페이서 기부 페이지에서 다음달 24일까지 500만원을 목표로 광주지역 수달 현황 조사와 안전을 설치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은 무등산과 연결된 광주전과 영산강·황룡강 인근에서 목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폐사 신고된 수달 13마리 중 9마리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이 단계가 모금에 나선 이유다.

단체는 수달 보호를 위한 모금 운동을 벌여 현황 조사를 하고 로드킬 방지 안전시설물(차량운전자

의 주의를 이끌어 내는 안내판·도로 바닥 또는 도로 갭에 자동차 라이트 반사판·야광 표지판·속도 줄이기 안내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시민액션팀을 구성해 수달에 대해 학습하고, 광주에서 살고 있는 수달 서식지와 생태환경을 전문가와 함께 조사해 데이터로 남길 예정이다.

또 수달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 활동과 함께 수달 서식지의 생활폐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등도 진행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수달이 살 수 없는 곳은 인간도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도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소록도병원, 4년만에 한센인의 날 행사

한센병박물관 임시 개관·배구대회·노래자랑 등 진행

제107주년을 맞은 국립소록도병원에서 4년 만에 한센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소록도병원은 지난 16일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행사는 전국의 한센인 3200여명과 고층군수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은 코로나19로 휴관했던 소록도 한센병 박물관을 임시 개관해 소록도 한센인의 삶을 보여주는 기획전시, M치료실(마리안·마가렛 치료실)에 대한 관람도 이뤄졌다.

이외에도 한센인 화합을 위한 배구대회와 한센가족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센인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2명에 대한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도 이뤄졌다.

이날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정현영(사)한국구라봉사회 이사는 한센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로, 전국의 한센인 정착마을과 요양시설, 소록도병원 현장을 방문해 의지를 제창해왔다. 함께 수상한 강정대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부설의원장은 15년간 한센인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보장구 지원을 비롯해 이동 진료를 펼쳐왔다.

박태경 국립소록도병원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센인들 마음의 고향인 소록도병원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참석하신 모든 한센인들이 오늘만이라도 그간의 편견과 차별을 잊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센인의 날은 매년 국립소록도병원 개원일(5월 17일)에 맞춰 전국 한센인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기념일로, (사)한국한센총연합회가 2004년에 지정했다. /김다인 기자 kdi@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

영상·디자인 등 3개 분야 공모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실시하는 ‘제5회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가 열린다.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문화제는 ▲영상 ▲디자인(굿스 및 이모티콘) ▲만화·웹툰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주제는 ‘전자담배의 위험성’과 ‘흡연(담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6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된다.

전국의 초·중·고교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제 공식 누리집(khealthyouth.co.kr)에서 공모 요강과 부문별 응모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1·2차 심사를 거쳐 9월 중 문화제 누리집에 발표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추가 모집

보건복지부가 2023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참여 기관 1개소를 추가로 모집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자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받을 수 있다.

기관으로 선정되면 3억 2700만원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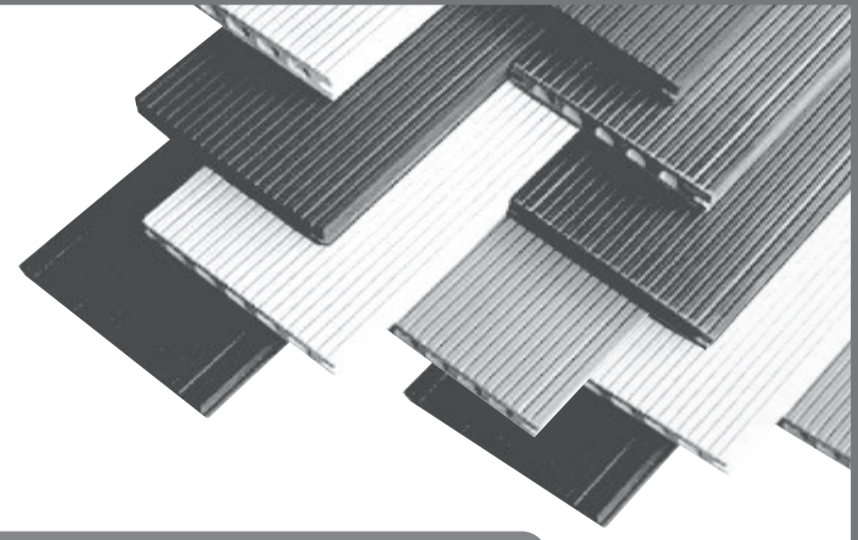
이번 공모는 17개 시도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9개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광주와 전남 모두 해당된다. 대상은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으로, 모집기간은 6월 26일까지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장애인건강과(044-202-3199, 3198)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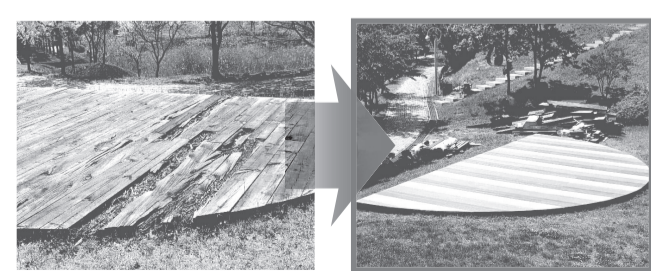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